

# 군산시 미룡교 재가설 공사 순조

### 침수피해 사전 예방 도모 내년 6월 말까지 준공 공사기간 임시 가설도로 운용... 제한속도 90km

군산시는 2012년 집중호우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새만금북로(금광 베네스타 앞) 국도 21호선 구간의 미룡교를 재가설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미룡교 인상 및 재가설 공사를 위해 새만금북로 남측으로 임시 가설도로(약 600m, 왕복 6차선) 개설을 완료했으며, 가설도로의 운용으로 도로 구간이 선형에서 곡선으로 형성됨에 따라 공사구간의 통과 속도를 기존 전속도로 제한속도인 90km에서 70km로 제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가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 가설도로의 시·종점 부에 과속카메라 2대를 군산경찰서

와 협의를 거쳐 설치 후 공사구간의 속도를 제한하고 공사 준공 이후에는 본래 제한속도인 90km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가설도로의 운용은 공사기간인 2017년 9월 2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이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일 상행선(전주 방향)을 우선 개통하고 9월 9일 하행선(비응향 방향)을 이어서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가설도로 개통에 앞서 가설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대중교통 관련 버스회사 및 택시조합, 운송조합 등에 사전 홍보할 계획이며,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



군산시는 2012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새만금북로 국도 21호선 구간의 미룡교를 재가설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VMS표지판,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최대한 널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룡교 재가설 공사

를 안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가설도로 운용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 익산시 악취 지속... "사실상 제로화 어려워"

최근 익산시 도심 일대에 원인모를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 불편이 잇따름에 따라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5일 밤 8시 정 시장은 악취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산업단지 내 악취신고대상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시설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악취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야간 조업 중인 악취배출사업장의 굴뚝에 올라가 냄새를 맡아보는 등 악취방지 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사업체로부터 악취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악취저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시설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근래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발생원인을 찾고자 25일 새벽 3시 도심주변 소각시설과 악취 유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도시에 발생하는 축산악취의 원인 규명을 위해 새만금관리

청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농정주에게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 등을 통해 악취발생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주관적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 파악과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익산시는 지역의 오랜 난제인 악취저감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악취모니터요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악취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악취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원 급증·시민불편 잇따라 정현을 시장, 긴급 점검 나서

또한 악취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관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계절적 기후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현을 시장은 "악취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악취원인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악취 제로화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악취저감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점검

### 익산시, 추진상황 보고회 관련 부서장 등 70여명 참석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지난 25일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 주재로 분야별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체전준비를 위한 전국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추진상황 보고회는 내년 10월 12~18)과 제9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해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 기자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2018년 전국체육대회는 익산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체전과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체전을 계기로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가 널리 퍼져 익산시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품뭉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9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해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난 24일 군산시 보건소와 청암산 꼬마 숲 놀이동산이 손을 잡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 아토피치료, 자연 속에서 해답 찾는다

### 군산시보건소, 힐링체험 교실 회당 20여명 선착순 신청 접수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아토피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4일 군산시보건소와 청암산 꼬마 숲 놀이동산이 손을 잡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아토피 힐링체험 교실의 대상자는 보건소 등록관리 대상 환자 중 신규 등록자를 우선으로 회당 20여명을 선착순 신청 받아 아토피를 꾸준히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자가 관리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1부에는 어린이 숲 체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암산 꼬마 숲 놀이동산에서 자연을 활용한 몸열기, 마음열기 생태놀이, 생태미술과 숲 체험을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천연비누 제조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천연 비누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아토피 관리법을 제공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토피 힐링체험은 9월28에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이다.

힐링체험에 참여한 환자 엄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연 속 힐링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준 보건소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 익산시 봉사·나눔문화 실천 앞장

### 국제라이온스협 전북지구와 복지사업 추진 업무협약

익산시가 지난 24일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에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정성길)와 지역사회 봉사·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는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기존 공적지원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봉사·나눔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성길 전북지구 총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나눔을 실천하면 사회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길 총재는 지난달 1일 전북지구 40대 총재로 취임하면서 전북지구 1만여 라이온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겸손한 봉사'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군산소방서가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

확인검사에서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분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잘못된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0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